전북 연등축제, 시민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전북봉축위, 연등축제 계획 발표
능동적인 화합과 소통 축제 표방
어린이 큰잔치·노래자랑 등 '다채'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2568년 연등축제의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전라북도 연등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마련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스님, 진성 스님)와 불교문화보존회는 4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계획을 밝혔다.

전북 봉축위는 올해 전주·완주 연등축제의 주제를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 타는 연등회'로 정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연등축제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신이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축제, 단순 종교행사가 아닌 전통 문화콘텐츠를 잘 살린 시민의 문화축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하루 동안 진행된 연등축제를 올해부터는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확대 진행된다.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전북어린이큰잔치(사생대회), 아미따유스 페스티벌(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경연 행사와 전통문화체험마당, 전통한지등강습회, 수수팥 경단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첫날인 5월 10일에는 아미따유스 페스티벌 본선이 개최된다. 아미따유스 페스티벌은 온라인을 통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총상금 500만원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둘째 날인 5월 11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시민노래자랑도 열린다. 저녁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이어 19시 30분부터는 전라감영, 영화거리, 팔달로, 관통로사거리로 이어지는 거리 연등행진이 펼쳐진다. 연등행진에는 50여 점의 장엄등과 1000여 점의 행렬등이 장관을 이루고 500여 점의 전통한지등이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특히 전주한지를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화장인 도홍 스님의 지화연꽃만들기, 전통한지 만들기 체험, 한지로 소원번쓰기, 시민 나눔용 한지연꽃등(500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주역 마중길에 세워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원탑은 미륵사지탑 1/5 축소형으로 전통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라며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내소사, 해안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재

선대 조사 다례재도 함께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4월 15일 해안 대종사 50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해안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사스님의 50주기 추모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중을 외호하고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주지 진성 스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며 "늘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각국사 탄신 846주년 추모 다례재

4월 18일, 화순문화원서



진각국사 혜심 스님 탄신 846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 스님)는 4월 18일 전남 화순문화원 들국화 강당에서 3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진각국사 탄신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대현 스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진각국사의 숭고한 수행과 소통, 화합하는 정신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갑진년 산신대재

복성산업개발 등 후원한
백미 3000kg, 진안군에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가 갑진년 4월 13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봄 마이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마이산 탑사 자비의 백미를 붓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산신대재는 범종 타종으로 시작해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스님)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주일건설, ㈜혁신금속에서 후원한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대(3000kg)를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박금태 회장과 함께 진안군에 전달해 신신대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스님, 태봉사 법진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영산작법보존회스님들과 금당사 주지 능엄 스님, 박금태 ㈜복성산업개발회장, 전문순 부회장, 윤금상 마이산탑사 신도회장, 안계현 진안군 안전환경국장, 김민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어른께서 1885년부터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138년간 산신제를 봉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1962년에 촬영된 사진 속에 들어 있는 탑 1기를 최근에 복원하고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있었기에 오늘 산신제가 더욱 기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춘계향사

불교 · 유교 재례형식으로
의승병 호국정신 되새겨



제561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가 열렸다.〈사진〉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4월 13일 경내 사당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불교와 유교의 합동 향사를 봉행했다.

참석대중은 불교와 유교의 재례형식으로 봉행된 이날 춘계향사를 통해 왜군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 3화상과 의승병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충효정신과 구국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의처가 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 법이 원융무애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아서 남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고 세계가 평화롭고 중생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명대사의 위대함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며 "호국정신이 생생하게 녹아 있는 표충사 도량이 밀양시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수호 도량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장의 큰 어르신인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빛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사부대중 삼보일배 정진

4월 13일, 화합 · 치유 염원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4월 13일 성주사 불모학당, 성주사 불교대학, 창원대 불교학생회 4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봄 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삼보일배에는 국운 융성과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현 사회의 치유와 화합 염원이 담겼다. 법안 스님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

4월 15일, 1500여 명 동참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4월 15일 경내 대웅전 3층석탑 앞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의식에서 삼중사는 십중대계를 설했고, 참회진언 합송과 함께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수계자들에게 연비를 했다.

도신 스님은 "계를 잘 받들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영불교사암연, 봉축연등 점등

통영불교사암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열었다.〈사진〉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4월 16일 통영시 항남 오거리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통영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통영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인간 존엄과 상생을 실천해 각종 고통에서 벗어나 어두운 밤하늘에 형형색색 펼쳐지는 연등처럼 우리 사회의 슬픔과 어둠이 걷히고 상생의 등불이 비추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13일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과 가로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가로연등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봉축 주제에 맞춰 제작됐고, 봉축탑은 선운사 대웅보전 앞 6층석탑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경우 스님은 "이 등불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이며,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신의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주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는 4월 13일 금강둔치 신관공원 내 미르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봉축탑은 국보 승격이 추진되는 마곡사 5층석탑 모형으로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사암연합회 회장 천산 스님, 마곡사 부주지 태경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이종직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이윤진마곡사 신도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천산 스님은 "안팎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한마음으로 불을 밝혀 더욱 안정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개최

세종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환성 스님)가 4월 17일 조치원역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환성 스님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철 불교신행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환성 스님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점등으로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점등의 의미"라며 "오늘 점등으로 모든 이의 마음에 불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축법회는 5월 11일 오후 3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곡성 태안사, 효잔치 산사음악회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 스님)는 4월 13일 경내에서 '공양미 삼백석 효잔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최근 보물로 승격한 일주문과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곡성군 내 어르신들을 초청, 식사 대접과 산사음악회, 공양미를 전달했다.

각초 스님은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량 태안사는 천 년 전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셨던 혜철선사, 도선 국사의 뜻이 오늘날에도 실현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각초 스님은 문화재청장을 대신해 이상철 곡성군수로부터 일주문 보물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겁외사, 백련문도회 방생법회 봉행

백련문도회가 4월 14일 경남 산청 겁외사(주지 일학 스님)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겁외사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퇴옹당 성철 대종사의 생가터에 건립된 사찰이다.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은 "올해는 태옹당 성철 종정예하의 탄신 112주년을 맞고 열반 31주기가 되는 해이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방생법회를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많은 불자가 동참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경호강으로 이동한 사부대중은 방생의식을 봉행하고 붕어와 잉어 치어 3000마리를 방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